

한일 사회과 예비교사의 ‘더 좋은 히로시마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

이정희(광주교대)

코로나 19로 인하여 다양한 한일교류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교류의 성격을 지닌 심포지움의 장이 마련되어 감사드리는 바이다.

이 연구는 한일간에 존재하는 갈등을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대국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 모색으로 보인다. 한일 상호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가운데 교사의 인식이 가지는 영향력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교사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한일 예비교사들의 외부 세계에 대하여 열린 교재관, 내부 세계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PPT만으로는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1. 한일 양국 학생들의 한일 공동사용 교과서 개발에 대한 인식

3 차 (한국→일본) : 과거의 반성에 기초한 역사교과서

- 지역교과서가 아닌 역사교과서

4 차 (일본→한국) :앞으로를 생각하는 히로시마 교과서

- 역사교과서가 아닌 히로시마 교과서

「전쟁에 대한 직간접적 반성」에 대해서는 반대

한국 학생들은 ‘역사 교과서, 수업에서 히로시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모습이 보인 반면, 일본 학생들은 ‘역사교과서가 아닌 히로시마 교과서’, 즉 지역교과서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 여기서 한일 공동 교과서 개발 과제인 ‘더 좋은 히로시마 교과서 만들기’에 대한 공통 인식 즉, 기본 전제가 다른 것 같은데 연구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2. 진정한 대화를 위한 정치적 문맥 이해와 감정의 정치

- 2. 참가자가 자기와 타자의 이야기를 둘러싼 (정치적)문맥을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3. 참가자가 자기와 타자의 이야기를 둘러싼 (정치적)문맥을 이해하도록 분석, 비판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 ‘원폭 피해를 보다 상세하게, 감정을 담아 기술’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협력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감정의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감정은 공동체 내의 개인을 하나로 묶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구성원들 사

이에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 집단 내 정체성이 강조될수록 내집단에서는 공유, 협력, 단결이 강화되는 반면에 대외적으로는 경쟁과 대립 구도가 더욱 첨예하게 나타나게 된다. 특히 집단 내 정체성 강화는 애국심과 같은 민족주의적 감정이 수단으로 동원되며, 사회적인 불신과 불만이 정권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타자에게 전가해 버리는 감정이 전면에 등장하는 정치가 일상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감정의 정치로 인하여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다.

‘국가의 내러티브에 의한 국민의식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교과서를 바라보았을 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국에 대한 감정은 교과서나 이를 매개로 한 수업 등을 통해 형성된 학습된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진정한 대화를 위한 ‘비판적 애국주의’와 ‘참가자가 자기와 타자의 이야기를 둘러싼 (정치적)문맥 이해’에서 이와 같은 감정의 정치는 어떻게 고려되었는가?

3. ‘안전한 공공권’ 만들기

논쟁 문제를 다룰 때 ‘안전한 공공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한일 예비교사의 교과서 만들기 경험이 사회과 교사로서 실천 역량함양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공공권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과 구조적 폭력의 원인을 제거해나가는 ‘평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내 존재하는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권 감수성과 비판적 안목을 기른 후에 자국의 논리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를 통해 타자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일 양국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예비교사들에게 토론,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한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연구가 더욱 발전적으로 진행되어 한일 양국 간의 우호 증진,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